

# 朝鮮王朝 儀仗旗에 관한 研究 (I)

白 英 子  
德成女子大學 衣裳學科

## A Study on the Ceremonial Flags in the Yi Dynasty

Young Ja Baek

Duck Sung Women's College, Department of Clothing

### Abstract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perform a ceremony with the utmost honor in every society and the fact is that ancient Koreans executed sacrificial rites to natural scenery with primitive religious things from the beginning of Korean history.

Minute records on the various ceremonies to the Koryeo Dynasty are found in Koryeodogyeong and it might be said that there were no standing rules and the many ceremonies were resorted to an expedient, because in the Yi Dynasty the first codified ceremonial lawbook, Kukjooryeui was formalized and after then all the ceremonies and formalities were carried out by the referential rules of the above-mentioned Kukjooryeui. After the imperial enthronement of Kojong, all the ceremonial goods and flags symbolizing the heaven and auspicious animals—authority and fortune—were made by Daemyeongjibyei, which are found at Changdeokgung now.

There are no remarkable differences in the Yi Dynasty between the records at the beginning and the remains at the last stage, which shows once-fixed standing rules were kept faithfully to the end. The main patterns used on flags were of imaginary animals such as dragon, indicating the wish that countless authority and fortune should be realized.

This is the former part of the study on the ceremonial flags in the Yi Dynasty and I hope the detailed idea and symbolic meaning concerning the flags will be discussed later.

### I. 序 論

儀式은 日常의 平凡함에서 메어져서 非凡함을 집약 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지를 충족 시키기 위해 儀式에 갖추어지는 儀式物은 동원할 수 있는 가능한 한도에서 최대의, 그리고 최상의 대상물이 선택될 것이다. 그 儀式이 국가적일 경우 그에 따르는 儀仗物은 국가의 現存 威力을 과시할 수 있는 빼어난 힘을 지닌 실제의 대상, 통치의 罔原에서 나타난 조화 능력을 갖춘 초월적인 상상의 대상이 取擇되었다. 이러한 대상물의 선택 행위는 그 국가의 사회적 배경과 요구, 사상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결과이며

이 대상의 조사 연구는 그 사회, 시대의 사상을 첨예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儀仗物로 사용된 구체적 품목은 중국의 경우 虎, 豹, 象, 馬 등 실제 산 짐승도 동원되었으며, 각종 깃발, 傘, 扇, 도끼(斧), 창, 수레 등 다양하며 이들을 화려하고 장엄하게 威儀를 갖춰 정열하였다. 그중 儀仗旗는 旗자체가 상징적인 標指機能이란 점에서 효율적으로 儀仗의 핵심요소를 이루고 있다. 이들 儀仗旗는 自然對象인 天, 日, 月, 動物, 그리고 神人등을 模象하였는 바 사회 시대의 변천에 따라 형태, 색, 내용의 변화를 보이면서 점차 樣式化 圖式化되어 갔다.

本研究은 儀仗旗를 그 사회 사상이 종합적으로 투영된 상징의 집약체라 보고 먼저 儀仗旗를 時代史的 흐름

에 따라 살펴보고 다음에 조선시대의 儀仗旗를 각각의 형태와 문양배열을 조사 연구하여 旗의 구체적 實相을 밝힘을 중점으로 하고 그 內面的 意味인 상징 및 사상과의 맥락을 찾고자 한다.

## Ⅱ. 朝鮮以前的 儀仗旗에 관한 歷史的 考察

### 1. 上代의 儀仗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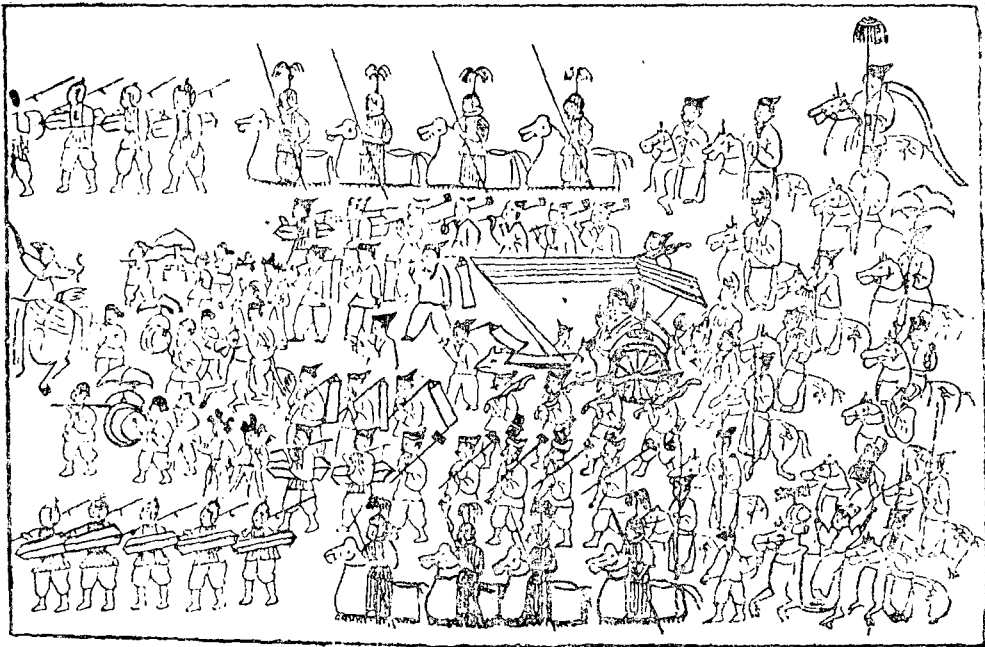
上代 社會에서 사용된 儀仗은 古墳壁畫에서 그 형식을 뚜렷이 알 수가 있다. 즉 黃海道 安岳地方에서 發見된 安岳 第3號墳, 安岳 第1號墳 등이 그것이다. 특히 安岳 第3號墳 壁畫의 主題는 被葬者 生前의 生活을 多面的으로 形象化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多樣한 內容을 各室에 配置하여 그리고 있다. 그 중 東쪽 廻廊東壁에는 南에서 北으로 進行하는 大行列圖를 그렸는데 壁畫를 높이 2m, 길이 6m되는 한 장 板石위에 거의 들어차게 그린 것이므로 畫面의 크기도 이 무덤 壁畫의 으뜸이거니와 그 複雜하고 多彩로운 것도 다른데 比할 바 없이 主人의 위엄을 한층 더해주는 것이다.

이 行列圖는 主人公이 曲椅子를 타고 250여명의 數多한 前陪, 側陪, 後陪들의 容위를 받으면서 호화롭고 장엄한 行列을 하는 光景이다. 이는 朝鮮時代의 陵行圖나 儀仗 班次圖 즉 鹵簿를 보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이 行列圖는 5列 또는 8~9列의 縱隊列로서 그 隨行者中에는 여러 職種과 職位의 人物이 包含되어 있는데 이중 儀仗兵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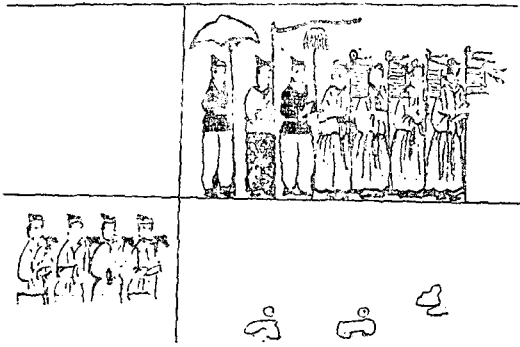
曲柄傘騎手, 旌節旗手, 弓箭手, 斧鉞手, 槍手, 環刀手, 鎧馬騎手, 燈籠手 등이고 여기에 넓은 리봉과 같은 긴 長幅旗, 번두리가 툇날같이 된(火焰脚) 짧은 旗(鋸齒形旗手)를 볼 수 있다.<sup>1)</sup> 그 외에 安岳第3號墳 중에는 戰吏와 斧鉞手를 그린 내용에 旗幟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壁畫에 나타난 儀仗旗로는 약수리벽화 행렬도가 있어 여러개의 '기치와'의 장도구를 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中國의 경우 上代에서 사용된 旗幟의 예로는 關東州 營城子古墓 壁畫人物圖<sup>2)</sup>와 敦煌千佛洞 第十七號洞 壁畫<sup>3)</sup>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특히 敦煌의 것은 行列圖로서 大旗幟가 많이 늘어져 있어 규모가 컸음을 알 수



〔圖 1〕 安岳 第3號墳 大行列圖

1) 蔡秉瑞, 安岳地方의 壁畫古墳, 白山學報 第2號 p. 53.  
2) 原田淑人, 漢文朝의 服飾(圖版 17), 東洋文庫, 昭和 12年.  
3) 原田淑人, 唐代의 服飾(第1編 圖版 13), 東洋文庫, 昭和 12年.



〔圖 2〕 安岳第3號墳, 戰吏와 斧鉞手

있다.

大明集禮<sup>4)</sup>나 三才圖會에 의하면 儀仗旗에 대한 명칭, 유래, 상징 등의 확립시기가 주로 宋·元·明을 중심으로 되고 있어 중국에서도 禮로서 확립된 시기는 宋代에 가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高句麗 古墳壁畫에 보이는 儀仗行列은 安岳第3號墳의 主人公이 中國系사람으로 고구려에 投歸하였기 때문에 中國色彩가 많이 가미된 儀仗이라고 추측되나 위와 같은 사실을 감안할 때 간단하고 便宜로운 의장기가 삼국시대에는 쓰인 것 같다.

2. 高麗의 儀仗旗

高麗圖經 儀物에 의하면 여러 오랑캐 나라는 비록 임금에 있으나, 그 출입에는 旌(장목을 단 旗)과 旛(자루 위가 굽은 旗) 십여개가 따르는 데에 불과하여 신하들이들과 거의 뚜렷한 분별이 없다. 다만, 고려는 본래 朝聘을 통하여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그 군신 상하가 거동할 적에 禮文(禮法의 명문)이 있으니, 왕의 巡行에 자기 儀物과 神旗가 있어 先驅하는 甲士가 사람이 오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 六衛의 군대가 자기 그 의물을 잡고 가니 비록 典禮에 맞지는 않으나 다른 여러 오랑캐에 비하면 찬연히 빛나 볼만하다.<sup>5)</sup>

즉 高麗의 儀仗은 이웃 여러 오랑캐에 비하면 비록 典禮에 맞지는 않으나 찬연히 빛나 볼만 하다고 하였으니 여기서 典禮에 맞지 않는다 함은 宋의 제도와 차이가 있는 儀仗제도임을 말해 주고 있어 三國時代와 같이 傳來의 俗禮가 많이 가미된 상태에서 약간 더 발전된 儀仗制度였다고 생각된다.

高麗의 儀仗旗는 高麗國經에 잘 나타나 있는 바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象 旗

象旗는 둘이며 그 제도는 旒가 모두 검은니 이는 水數(북방의 수)를 상징한 것이다. 가운데에 한 마리의 코끼리를 그렸다.

● 鷹隼旗

鷹隼旗는 둘이며 그 제도는 몸체와 旒가 모두 붉은니 이는 火數(남방의 수)를 상징한 것이며, 가운데에 새와 새매가 날아오르는 모양을 그리니 빠르고 속한 의취가 있다.

● 海馬旗

馬旗는 둘이며, 그 제도는 몸체와 술이 모두 푸르니 木數(동방의 수)를 상징한 것이다. 가운데 한 마리의 말을 그렸는데 앞 어깨죽지에 갈기가 있어 마치 불이 치 쫓는것 같으니, 대개 말은 火畜이기 때문이다.

● 鳳 旗

鳳旗는 둘이며, 그 제도는 몸체와 술이 모두 누르니 土數(중앙의 수)를 상징한 것이다. 가운데에 나는 鳳을 그렸는데 위치는 中宮에 응한 것이다.

● 太白旗

太白旗는 둘이며 그 제도는 몸체와 술이 모두 희니 金水의 數(서방의 수)를 상징한 것이다. 가운데에 거북을 탄 太白神을 그렸다.

● 五方旗

北方의 旗는 흑색, 東方의 旗는 푸른 색, 西方의 旗는 흰색, 中央의 旗는 황색의 一旒로 된 것이며, 그 너비는 두 폭인데 그림이나 수놓은 무늬가 없고 南方의 旗는 붉은 색 一旒로 된 것으로 가운데에 神인을 그렸다.

● 小 旗

小旗의 제도는 붉은 술에 흰 바탕으로 되고 위의 초록색 구름을 그렸다.<sup>6)</sup>

Ⅲ. 朝鮮王朝의 儀仗旗

朝鮮은 世宗代부터 禮制를 定하기 시작하여 成宗代까지 四代 60여년만에 國朝五禮儀를 편찬 완성하여 우리나라 처음으로 國家의 基本禮式을 정하였다.

특히 儀仗에 관한 것은 이미 世宗代에 이루어져 朝

4) 大明集禮 卷四十三儀仗.

5) 宣和奉使, 高麗圖經 第9卷, 儀物.

6) 前掲書 第14卷 旗幟.

鮮王朝를 통하여 모든 儀仗의 根幹이 되었고 그 細部 事項이 世宗實錄 및 國朝五禮儀에 실려 있으며, 또한 鹵簿式, 儀仗班次圖 등에 그 使用方法이 좀더 체계있고 광범위하게 부연되어 정해지고 있다.

1. 鹵簿

鹵簿는 임금의 거동때의 威儀를 갖추기 위한 儀仗을 말하는 것으로 斧, 鉞, 蓋, 扇, 旗 등 儀物이 쓰이며 兵衛에 속한 乘輿司에서 맡아보았다. 鹵簿에는 大駕, 法駕, 小駕鹵簿가 있는데 大駕鹵簿는 詔勅을 맞이할 때와 社稷과 宗廟에 친히 祭享할 때에 이를 사용한다.

法駕鹵簿는 임금에 文昭殿, 先農에 친히 祭享하고 國學에 행차하여 釋尊禮를 행하고 射壇에서 활쏘기를 할 때나 武科의 殿試에 射壇에서 활쏘는 것을 구경할 때에 이를 사용한다.

小駕鹵簿는 陵에 參拜하고 활쏘는 것을 관람할 때나 평상시의 대궐 문밖에 거동할 때에 이를 사용한다. 表文에 拜禮하고, 香을 전달하고, 사신에게 명령하는 路次의 儀仗은 細仗이라 일컫는다.<sup>7)</sup>

또한 鹵簿式과 儀仗班次圖는 내용이 같은 책으로서 出駕의 大小儀仗을 수호와 從官의 차례 및 위치를 標記한 책으로서 鹵簿式의 年代는 1762年(영조 38年)으로 인정되고 있어<sup>8)</sup> 朝鮮初期에 定해진 鹵簿의 儀仗內容이 집대성되고 완전히 定立된 시기의 것이라 內容도 世宗實錄이나 國朝五禮儀보다 더 자세하다.

鹵簿式에 列記되어 있는 大小儀仗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 大駕鹵簿(一百六十五柄)

紅門大旗, 交龍旗, 黃龍旗, 朱雀旗, 天下太平旗, 君王千歲旗, 白虎旗, 青龍旗, 玄武旗, 六丁旗, 白澤旗, 三角旗, 角端旗, 龍馬旗, 玄鶴旗, 駕龜仙人旗, 碧鳳旗, 金字旗, 鼓字旗, 令字旗, 後殿大旗.

- 法駕鹵簿(一百十柄)

紅門大旗, 交龍旗, 黃龍旗, 君五千歲旗, 朱雀旗, 白虎旗, 青龍旗, 玄武旗, 白澤旗, 三角旗, 角端旗, 龍馬旗, 玄鶴旗, 白鶴旗, 令字旗, 鼓字旗, 駕龜仙人旗, 碧鳳旗, 後殿大旗.

- 小駕鹵簿(五六柄)

交龍旗, 朱雀旗, 青龍旗, 白虎旗, 玄武旗, 三角旗, 碧鳳旗, 角端旗, 龍馬旗, 玄鶴旗, 白鶴旗, 令字旗, 金字旗, 鼓字旗.

- 祈雨祭儀仗(四十柄)

朱雀旗, 青龍旗, 白虎旗, 玄武旗, 三角旗, 角端旗, 鼓字旗, 金字旗.

- 王妃儀仗(五十五柄)

白澤旗.

- 王世子儀仗(三十四柄)

麒麟旗, 白澤旗, 玄鶴旗, 白鶴旗, 駕龜仙人旗.

- 王世子嬪儀仗(二十一柄)

白澤旗.

- 王世孫儀仗(十九柄)

麒麟旗, 令字旗.

그밖에

- 仁政殿 正至 誕日 朝駕之圖 凡稱慶陣賀儀同

- 仁政展 進宴之圖

- 仁政門 朝參之圖

- 黃儀仗

- 影旗 細儀仗(三十一柄)

- 行用 細儀仗(三十柄)

樂器工生 總數<sup>9)</sup> 등이 더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 行事に 필요한 儀仗旗는 생략한다.

2. 儀仗旗의 種類

昌德宮에 보관되어 있는 儀仗旗는 그 旗幟의 種類만 해도 70여 종에 약 150여점이 소장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高宗이 皇帝가 된 후의 새로이 大明集禮에 의거 制定된 旗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면 관계상 光武年에 制定된 旗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朝鮮王朝初期에서 末期까지 사용되었던 儀仗旗만을 대상으로 昌德宮의 遺物과 같이 대조하여 보고자 한다.

- 紅門大旗

赤色の 바탕에 青龍과 雲氣를 그리고, 青色·赤色·黃色·白色의 네 가지의 빛깔로 彩色하고 火焰脚이 있다. 旗竿은 검은 빛의 칠을 하고, 둥근 머리에는 붉은 빛의 칠을 하고, 아래쪽의 끝은 쇠로 장식한다. 뒤의 것도 이와 같다.

- 黃龍旗

황색의 바탕에 黃龍과 雲氣를 그리고, 청색·적색·황색·백색의 네 가지 빛깔로 彩色하고, 火焰脚이 있다.

- 玄武旗

黑色의 바탕에 龜蛇와 雲氣를 그리고, 청색·적색·황색·백색의 네 가지 빛깔로 彩色하고, 火焰脚이 있다.

7) 世宗實錄 第132卷 嘉禮序例 鹵簿.

8) 李弘植編 國史大事典, 一中堂, 1978.

9) 鹵簿式, 奎章閣.



〔圖 3〕 紅門大旗



〔圖 5〕 朱 雀 旗



〔圖 4〕 玄 武 旗

다.

● 朱 雀 旗

적색의 바탕에朱雀과 靈氣를 그리고, 청색·적색·황색·백색의 네 가지 빛깔의 彩色을 하고 火焰脚이 있다.

● 白 虎 旗

백색의 바탕에 白虎와 靈氣를 그리고, 청색·적색·황색·백색의 네 가지의 빛깔로 彩色을 하고 火焰脚이 있다.

● 青 龍 旗

청색의 바탕에 靑龍과 靈氣를 그리고, 청색·적색·황색·백색의 네 가지 빛깔의 彩色을 하고 火焰脚이 있다.

● 丁 丑 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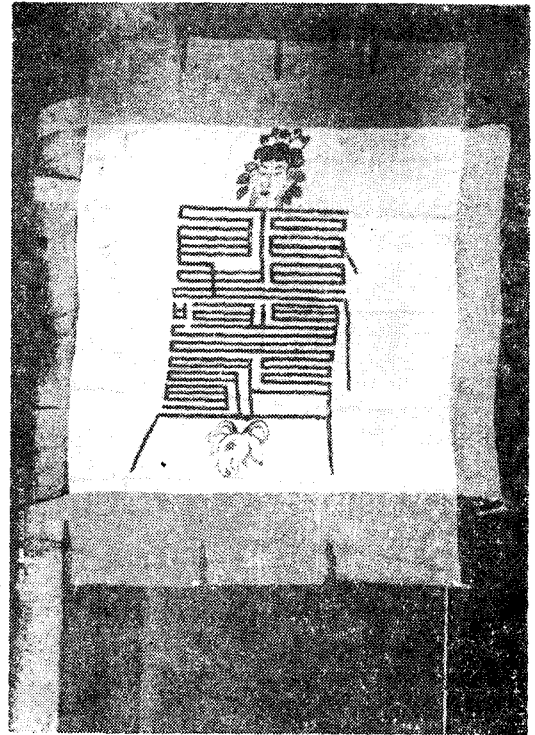
흑색의 바탕에 위에는 神의 형상을 그리고, 아래에는 本獸의 머리를 그리고, 옆에는 청색·적색·황색·백색의 네 가지 채색을 하고 火焰이 있다.

● 丁 卯 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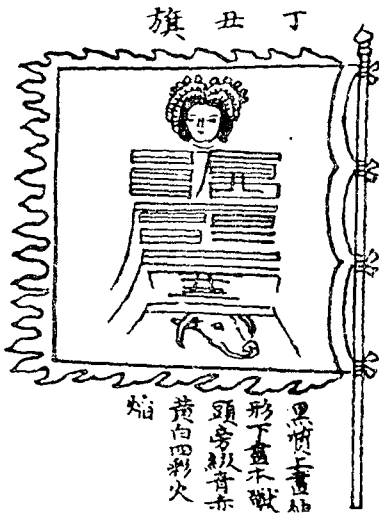
청색의 바탕에 위에는 神의 형상을 그리고, 아래에는 本獸의 머리를 그리고 옆에는 청색·적색·황색·백색의 네 가지 彩色을 하고 火焰이 있다.



〔圖 6〕白虎旗



〔圖 8〕丁未旗



〔圖 7〕丁丑旗

●丁巳旗

청색의 바탕에 위에는 神의 형상을 그리고, 아래에는 本獸의 머리를 그리고 옆에는 청·적·황·백의 네 가지 彩色을 하고 火焰이 있다.

●丁未旗

백색의 바탕에 위에는 神의 형상을 그리고, 아래에는 本獸의 머리를 그리고, 옆에는 청·적·황·백의 네 가지 彩色을 하고, 火焰이 있다.

●丁酉旗

백색의 바탕에 위에는 神의 형상 아래에는 本獸의 머리를 그리고 옆에는 청·적·황·백의 네 가지 彩色을 하고, 火焰이 있다.

●丁亥旗

흑색의 바탕에 위에는 神의 형상, 아래에는 本獸의 머리를 그리고, 옆에는 청·적·황·백색의 彩色을 하고 火焰이 있다.

●白澤旗

백색의 바탕에 白澤과 靈氣를 그리고, 청·적·황·백의 네 가지 빛깔로 彩色을 하고, 火焰脚이 있다. 神獸로서 만물의 모든 뜻을 알아낸다고 하는데 상서로운 짐승이라 하여 이 기를 사용한 것이다.

●三角旗

백색의 바탕에 三角과 靈氣를 그리고, 청·적·황·백의 네 가지 빛깔로 彩色을 하고, 火焰脚이 있다.

●角端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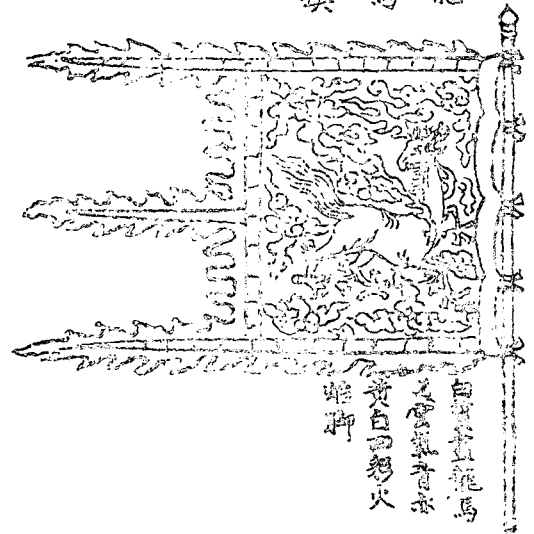


〔圖 9〕 白澤旗



〔圖 10〕 三角旗

龍馬旗



〔圖 11〕 龍馬旗

백색의 바탕에 角端과 靈氣를 그리고, 청·적·황·백색의 彩色을 하고 火焰脚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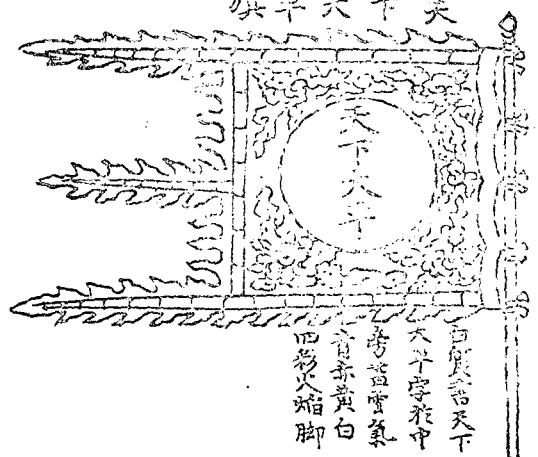
● 龍馬旗

백색의 바탕에 龍馬와 靈氣를 그리고, 청색·적색·황색·백색의 네 가지 빛깔로 彩色을 하고, 火焰脚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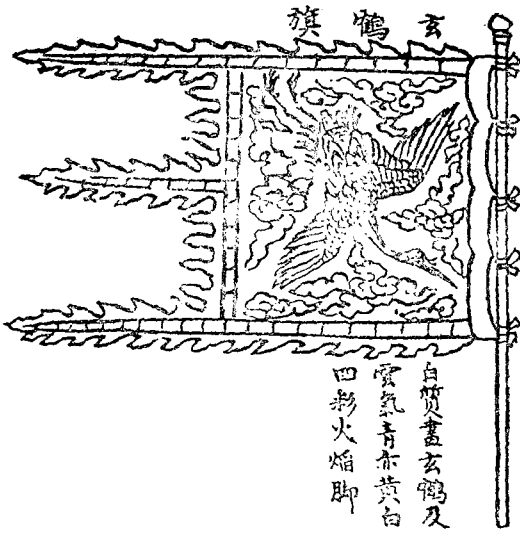
○ 天下大平旗

백색의 바탕에 “天下大平”이란 글자를 한부만에 쓰고, 옆에는 靈氣를 그리고, 청색·적색·황색·백색의 네 가지 빛깔로 彩色을 하고, 火焰脚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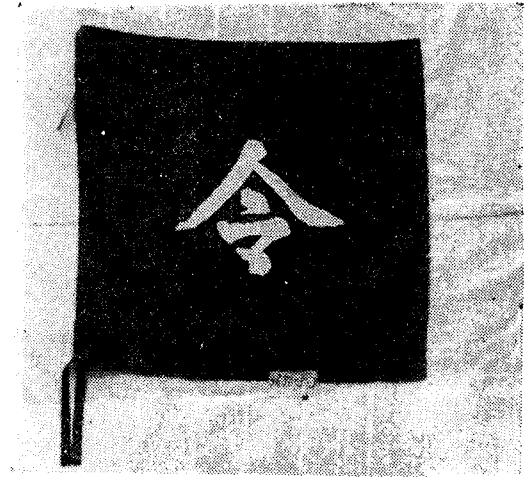
天下大平旗



〔圖 12〕 天下大平旗



〔圖 13〕 玄鶴旗



〔圖 15〕 令字旗



〔圖 14〕 駕龜仙人旗



〔圖 16〕 碧鳳旗

●玄鶴旗  
 백색의 바탕에 玄鶴과 雲氣를 그리고, 청색·적색·황색백색의 네 가지의 빛깔로 彩色을 하고 火焰脚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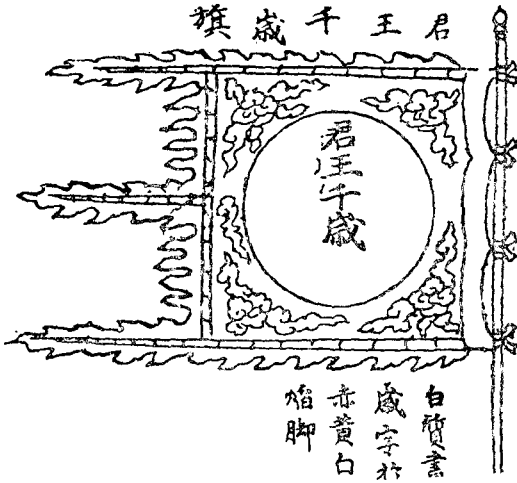
●白鶴旗

백색의 바탕에 白鶴과 電氣를 그리고, 청·적·황·백색으로 彩色하고, 火焰脚이 있다.

●駕龜仙人旗

백색의 바탕에 仙人이 道冠·黃衣·朱裳의 차림으로 綠色의 거북을 탄것과 雲氣를 그리고, 청색·적색·흑





〔圖 17〕 君王千歲旗

색·백색의 네 가지의 빛깔로 彩色을 하고 火焰脚이 있다.

● 令字旗

청색의 바탕에 上邊이 靑색하고 한복판에 “令”자를 쓴다.

창덕궁의 유물은 赤色바탕으로 바탕색이 다르다.

● 金字旗

적색의 바탕에 3개의 旗脚이 있으며 한복판에 “金”자를 쓴다.

● 鼓字旗

적색의 바탕에 3개의 旗脚이 있으며 한복판에 “鼓”자를 쓴다.

● 碧鳳旗

황색의 바탕에 碧鳳과 雲氣를 그리고, 靑·적·황·백색으로 彩色하고 火焰脚이 있다.

● 君王千歲旗

백색의 바탕에 “君王千歲”란 글자를 한복판에 쓰고, 靑색·적색·황색·백색의 네 가지의 빛깔로 彩色을 하고 火焰脚이 있다.

● 前殿大旗

흑색의 바탕에 靑龍과 雲氣를 그리고, 靑색·적색·황색·백색의 네 가지 빛깔로 彩色을 하고 火焰脚이 있다.

● 後殿大旗

제도는 위의 前殿大旗와 같으나, 다만 龜蛇를 그리는 것이 다르다.<sup>10)</sup>

3. 儀仗旗紋様の 象徵性

(1) 龍紋(紅門大旗, 黃龍旗, 交龍旗……)

中國古代에서 부터 天祿, 辟邪등을 殫원하는 상상의 神物로서 鳳, 龜, 麟과 더불어 四靈獸의 대표로 神성시 되었다. 신비로운 造化能力을 갖춘 靈物로 상상되었기에 그만큼이나 괴이한 各양 各색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形態에 연관된 龍의 종류를 살펴보면 虺龍, 蛟龍, 螭龍, 蟠龍 등 수십가지에 이른다.<sup>11)</sup>

이중 中國古代 殷나라 後期부터 나타난 虺龍의 虺은 蛇(독사)를 말하기 때문에 中國의 龍의 形態는 蛇系에서 발전된 것으로 보이며 蛟龍 등으로 조금씩 형태를 달리 해서 時代를 더함에 따라 龍紋자체의 독립된 屬性을 점차 갖추어 나간 것으로 보인다.

龍紋樣은 신비로운 造和能力으로 지극히 숭배되어 天子를 포상하는 상징물로 되어 그의 服飾 및 御用物에 사용되었으며 威儀를 정립하는 儀仗에서 더욱 중요한 자리를 차지 하였다. 旗幟의 紋樣으로는 周時代에 龍을 높은 紋樣으로 삼았다.<sup>12)</sup>

(2) 四神圖紋(朱雀旗, 玄武旗, 靑龍旗, 白虎旗)

朱雀, 玄武, 靑龍, 白虎는 東西南北 四方位를 지키는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 옛 임금의 행차를 따르던 兵졸을 대신하여 旌旗에 그린 것이다.<sup>13)</sup> 즉 四神이란 四方의 수호신을 상징적으로 東(靑龍), 西(白虎), 南(朱雀), 北(玄武)의 四靈神을 대용시킨 것인데 이러한 方位神의 상징은 殷代 甲骨文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이러한 四神의 상징적인 동물은 이전에는 四靈獸, 龍, 鳳, 龜, 麟으로서 통용되었다가 時代의 변천에 따라 色과 形의 감각차이로 麟을 虎로, 龜는 玄武로 鳳이 朱雀으로 대치된 것이다. 四神의 造形美가 最高의 藝術性을 發揚한 것은 朝鮮 高句麗時代 涅賢里 壁畫에 彩畫되어 있는 四神圖이다.<sup>14)</sup> 이러한 四神圖紋은 曆, 陰陽五行說 등의 사상적인 배경에 바탕을 두고 四神圖象으로 구체화되어 旗幟 등을 위시하여 生活과 밀착된 유대를 가지고 사용되었다.

(3) 白澤紋(白澤旗)

野王 符瑞圖에서 말하기를 澤이라는 짐승은 일명 白

10) 國朝五禮儀序例 卷之二 嘉禮, 鹵簿圖說.

11) 三才圖會(六), 鳥獸五卷.

12) 大明集禮 卷四十三 儀仗, 龍旗.

13) 前掲書 卷四十三 儀仗, 靑龍, 白虎, 牛雀, 玄武旗.

14) 渡邊素舟, 東洋文樣史, 富山房, 昭和五十 pp. 197-201.

澤이라 하는데 말할 줄 알고 萬物의 精神에 통달하여 王되는 자는 아득히 어둡고'던 것을 밝힌다. 黃帝 巡狩時에 東海에 이르니, 澤이 나와 백성에게 경계하여 말하더 그 때의 害惡을 없애 주었다.

또한 중국에서는 唐代에 澤의 존재가 나타나고 宋代의 白澤은 龍머리, 녹색머리털, 뿔을 이고 네발을 날아 달리는 모습인데 明代에 와서는 뿔달린 龍의 몸에 朱色머리털이다.<sup>15)</sup>

#### IV. 結 論

禮를 갖추어 儀式을 거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重要的의의를 갖는 것으로 이미 古朝鮮때부터 原始信仰에서 나온 山川이나 草木에 제사하고 또 神壇, 祭天등의 의식이 있어 원시적인 儀仗物이 있었으리라고 추측되고 三國時代에 이르러서는 高句麗의 古墳壁畫 大行列圖에서 (安岳 第3號墳, 약수리 벽화 행렬도) 제대로의 격식을 갖춘 儀式物과 儀仗旗로 장엄한 분위기를 내 준 실례를 볼 수 있겠다.

高麗時代의 儀仗에 관한 기록은 高麗圖經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朝鮮王朝의 禮典인 國朝五禮儀가 우리나라 최초로 成文化된 것이니 만큼 그 전까지는 일정한 準則없이 여러가지 요소가 합쳐져 便宜대로 시행했던 것 같다.

즉 安岳 第3號墳의 주인공은 中國系 사람으로 中國의인 양식인 周禮의 禮制가 혼합된 儀仗을 도입했을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原始信仰, 佛敎의인 要素가 가미되었으리라고 본다.

朝鮮王朝에 들어와서 국가체제가 정비되자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 五禮의 制가 성립된 이래 朝鮮末葉까지 여기에 의거해 모든 儀式과 儀仗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고, 高宗이 皇帝의 位에 오른 뒤의 儀仗은 황제라는 지극히 절대적인 권력의 상징으로서 하늘을 대신하는, 권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儀仗物과 儀仗旗를 大明集例에 의거 제작하였는데, 天의 28宿, 상서로운 動物紋樣 등을 사용한 것을 창덕궁의 유물을 조사 연

구한 결과 밝혀졌으나 황제의 의장기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상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朝鮮王朝時代에 使用되던 旗를 중심으로 初期의 문헌내용과 末期의 유물과 비교해 보았는 데 거의 차이가 없어 한번 定해진 禮典을 큰 변화없이 충실히 지켜왔음을 알겠다.

또한 채택되었던 紋樣의 상징성을 밝히는데 있어서 신비로운 조화능력을 가진 상상의 영물인 龍을 등장시키고, 사람에게 유익한 白澤紋, 陰陽五行說의 사상적인 배경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 졌으며 四方位를 지켜주는 四神圖紋 등, 모든 紋樣들이 무한한 권력을 최대로 상징해 주며 통치의 堦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상상의 動物紋樣을 채택하였음을 보겠다.

단지 좀더 내면적이고 근원적인 깊이가 있는 사상성 내지는 상징성을 찾고자 하였으나 고고학, 인류학, 미술사 등 각 분야에서 종합하여야 할 방대한 면이 있고, 시간 역시 촉박하여 미처 다 이루지 못한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 參 考 文 獻

- 蔡秉瑞, 安岳地方의 壁畫古墳, 白山學報 第2號
- 原田淑人, 漢六朝의 服飾. 東洋文庫 圖版 17, 昭和 12年.
- 原田淑人, 唐代 服飾 東洋文庫 第二編 圖版 13 昭和 45年.
- 大明集禮 卷 四十三 儀仗.
- 徐兢, 宣和奉使 高麗圖經 第九卷 儀物 第二十四卷 節仗, 第十四卷 旗幟.
- 世宗實錄, 第一百三十二卷 嘉禮序例 鹵簿.
- 李弘植 織, 國史大事典, 一中堂, 1978.
- 鹵簿式 奎章閣.
- 國朝五禮儀序例, 卷之二, 嘉禮, 鹵簿圖說.
- 王圻, 三才圖會(六) 鳥獸五卷.
- 渡邊素舟, 東洋文樣史, 富山房, 昭和 五十年.

15) 大明集禮 卷四十三 白澤.